



일파만파

KT새노조 소식지 2014.10.12

www.humankt.org

VOL.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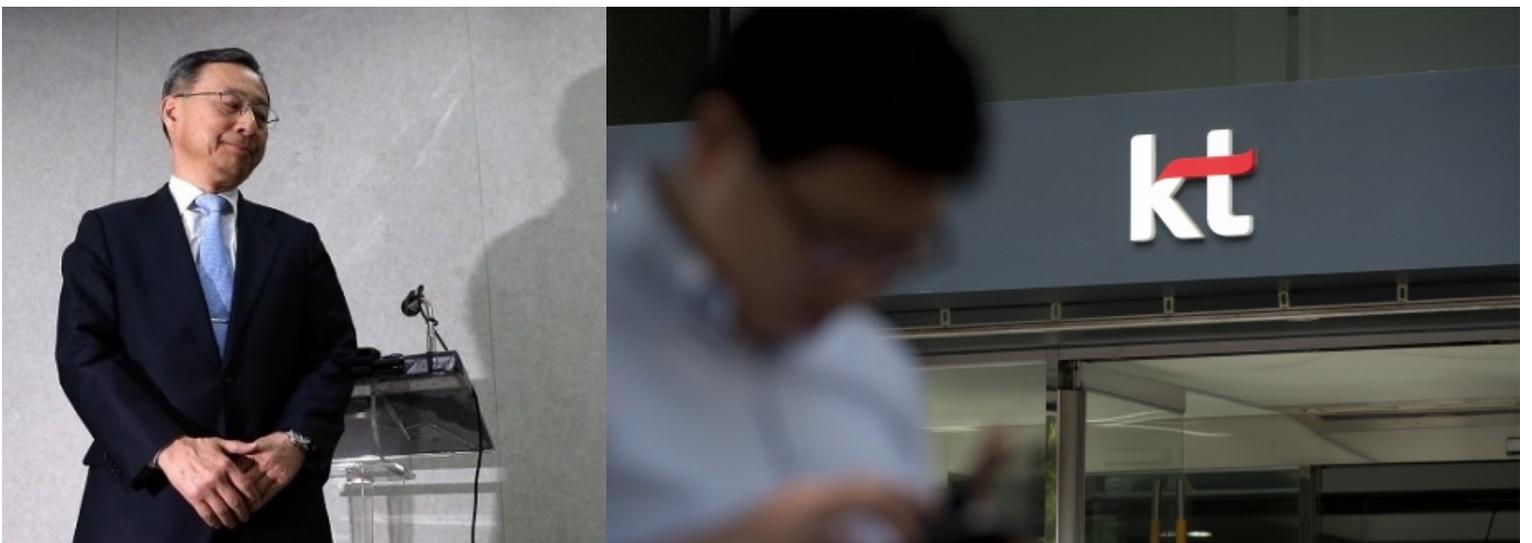
어수선한 KT, 직원들은 불안하다

어수선하다. 4.8대량 명퇴가 끝난 지 반 년이 다 되어가지만 조직이 안정되는 맛이 전혀 없다. 출처 불명의 추가 구조조정설이 끊임없이 나돌고, 임원들의 대량 물갈이설도 돌고 있다. 통상 대량명퇴 직후 어수선 하다가도 경영진이 조직 추스르기에 들어가면 안정을 찾고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하던 과거의 모습과는 전혀 딴 판으로 불안이 계속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렇듯 구조조정설이 나도는 데는 나름 현실적으로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

먼저 지방의 작은 군 단위에 국한된 것이지만 플라자 업무가 완전히 위탁업체로 넘어가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대리점 중심 영업이 시행되면서 직원들은 대리점 영업보조 업무를 할 뿐이어서 심지어 전산입력조차 못하게 되었다. 새노조가 만난 한 영업직원은 “이렇게 어영부영 1년 지나면 KT 정규직원 중 전산 입력할 줄 아는 사람이 아예 없어질 것”이라며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현업의 직원을 모두 없애려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 했다. 케이블매니저들의 경우 더욱 심각해서 직원들이 일이 많지 않음에도 대부분 공사를 외주업체에 맡기는 데 따른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 케이블매니저는 “솔직히 일이 줄어 몸은 편하지만 마음이 보통 불편한 게 아니다. 직원들이 할 일이 없는데도 계속 공사 업무를 외주 준다는 것은 CM 업무 자체를 외주화하려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추가 구조조정 의지 때문인가 무능함 때문인가

여기에다 자회사 개편설, 10월 인사평정설, CS직군 폐지설 등 온갖 루머가 계속 재생산되고 있고, 그 얘기들을 분석해 보면 나름 합리적 논거를 갖추고 있기도 하다. 이렇듯 어수선한 조직 분위기가 6개월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직원들은 “황창규 회장이 추가 구조조정 의지를 확고히 갖고 있는 게 아니라면 조직 분위기를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한 때문”이라는 여론이다. 즉 경영진의 추가 구조조정 의지가 확고하거나 아니면 현장을 모르는 무능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어느 쪽이든 결과는 KT 노동자들에게 매우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도 어수선하기 짝이 없어

그런데 이러한 어수선함이 내부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심각하다는 점이다. 먼저, 얼마 전 우리 모두를 아연실색하게 만든 청와대 사칭 인사 사기 사건이 있었다. 어이 없게도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한 사기꾼을 덜컥 황창규 회장이 만나 인사청탁을 받아버린 것. 물론 KT가 청와대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기꾼임이 드러나 청탁이 채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지만, 시민단체와 KT새노조의 줄기찬 면담요구에 대해 일체 응하지 않는 황 회장이 청와대 사칭에 사기꾼과 면담했다는 것 자체가 황 회장과 정치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수선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는가!



또 다시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른 KT

올해도 어김없이 KT는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대량명퇴 과정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등 강압적 노무관리를 이유로, 문방위에서는 개인정보 대량유출 등의 문제로 황창규 회장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이석채 전 회장이 르완다 출장을 핑계로 증인출석을 빠져나온 것과 똑같이 황 회장 역시 두바이 출국을 이유로 출석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그 대타로 기획부문장을 출석시키는 선에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은 마무리 되었다. 전임 이석채 회장 역시 인공위성 헐값매각에 대한 증언요청이 제기되었지만 비리경영 관련 진행 중인 재판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물론 KT 최고경영진으로서는 국회출석이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닐 것이고 따라서 요령껏 빠져나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KT 관련 국감 이슈는 대부분 국민이 KT에 바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국감증언이 무조건 회피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황 회장이 땀땀하다면 국민적으로 문제 제기되는 KT 경영 문제에 대해 당당하게 KT의 입장을 얘기할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황 회장 국감 출석해서 증언해야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이슈들을 보면 먼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KT의 대량명퇴가 이슈가 되고 있다. 8,304명 이라는 명퇴의 엄청난 규모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동시에 그 방식에 있어서 직장 내 괴롭힘을 통해 명퇴를 강요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이미 KT는 노동인권 침해 문제로 계속 나쁜 이미지가 만들어져 왔다. 그런 면에서 황창규 회장이 직접 국감에 출석해서 “임기 중에 추가 구조조정 하지 않겠다”는 증언이라도 한다면 국민적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직원들의 어수선한 분위기도 한 방에 해결되지 않겠는가! 또한 KT의 기업 이미지에 결정적인 먹칠을 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어수선한 분위기 KT노동자의 책임도 커

가을 날씨만큼 쌀쌀하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KT를 지배하고 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다 느끼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이렇듯 모두가 느끼는 어수선한 국면이 지속되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KT 직원들을 대변해야 할 KT노조가 아무런 역할도 못 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점이 크다. 단적으로 지난 4월 명퇴 당시 2015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기로 KT노사는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불과 2015년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상태에서 발표한 임금교섭에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어떤 합의도 없었다. 이는 직원들 여론이 민감한 시기인 KT노조선거를 피한 뒤 그 다음에 졸속으로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임금피크제 합의를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지 않는가 말이다. 이렇듯 KT노조의 무기력함 내지 어용성이 직원 대부분이 느끼는 고용불안의 커다란 한 이유라면, 그러한 집행부를 계속 만들어내는 KT 노동자들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물론 사측의 강압적인 노무관리가 두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넘어서지 못하면 아무런 고용불안이 계속될 것임도 분명하지 않은가! 어쩌면 KT노조라는 세월호에서 선장을 끌어내서 바꾸든가 아니면 구명보트(새노조)로 옮겨타든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KT 노동자의 모습이야 말로 이 어수선함의 진짜 이유일지 모른다.

노사 합의서

주식회사 케이티와 kt노동조합은 종사원의 요구를 반영하고 직원들의 새로운 인생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특별명예퇴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합의한다.

1. 특별명예퇴직을 2014.4.30일자로 시행한다.
 - 특별명예퇴직은 근속 15년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정년 잔여기간이 1년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 특별명예퇴직 유형은 퇴직형과 재취업형 2가지로 하며, 직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퇴직희망자가 재취업형을 선택하는 경우 직무연관성을 고려하여 2년간의 그룹사 취업을 알선한다.
2. 정기명예퇴직 제도는 2014.5.1일자로 폐지한다. 단, 2014.1분기 명예퇴직자는 금번 특별명예퇴직 조건에 준하여 적용한다.
3. 임금피크제는 2015.1.1일자로 도입한다. 단, 적용연령 및 감액을 등 세부기준은 추후 합의 시행한다.

붙임 : 특별명예퇴직 조건

2014.4.8.

주식회사 케이티
회장을 대리하여

kt노동조합
위원장을 대리하여

경영지원부문장 한 동 훈

사업지원실장 한 호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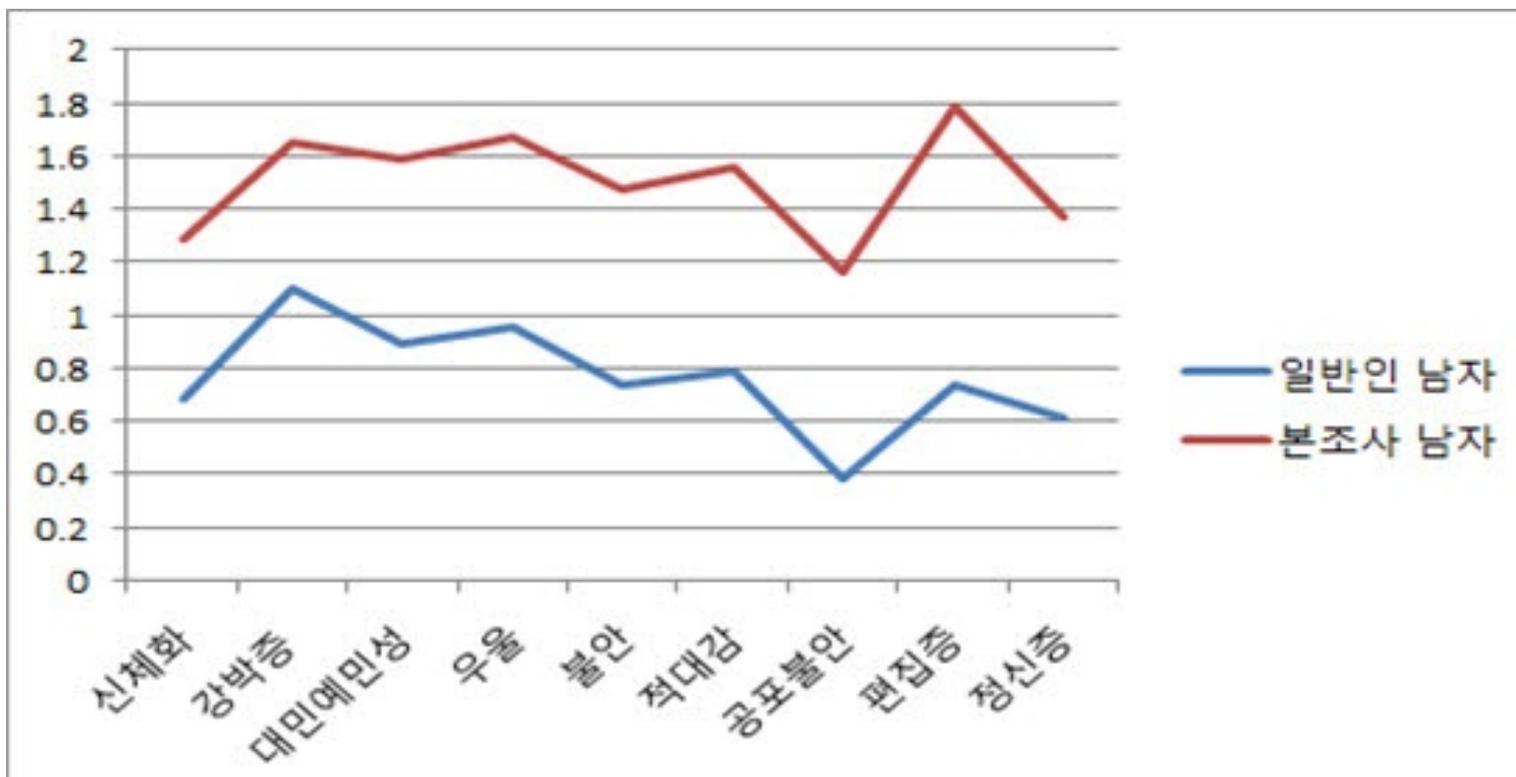


3. 임금피크제는 2015.1.1일자로 도입한다. 단, 적용연령 및 감액을 등 세부기준은 추후 합의 시행한다.

KT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스트레스 심각한 수준으로 밝혀져

KT새노조는 8,304명의 대량 명퇴 직후인 지난 5월에 공익변호사단체, 인권단체, 의료단체 등과 함께 <KT 사례로 보는 경영전략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연구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4.8명퇴자와 CFT 발령자에 대한 설문조사, 면접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와 면접을 실시한 당사자들은 현직 변호사, 의사, 연구자들로, 확고한 전문성에 기초한 연구조사였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먼저 CFT 노동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CFT 구성원은 전체 291명 중 221명이 응답했는데(설문 응답율 76%) 이중 189명(86.3%)이 명퇴를 요구받았다고 답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조사하기 위해 간이 정신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강박증, 대민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등 정신건강 관련 지표가 일반인 남자의 통계치와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CFT 노동자들이 명퇴를 전후해서 회사로부터 받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악영향을 받았음이 확인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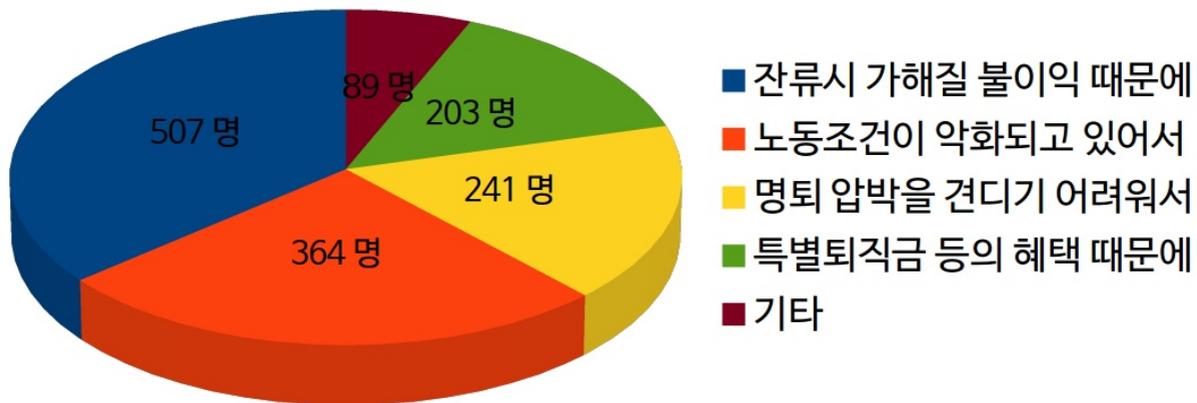


한편 지난 4월에 명퇴한 8,30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1,055명이 응답(응답률 13%)하였는데. 그 결과 역시 매우 충격적이어서 KT 경영진이 주장하는 명예로운 퇴직이 실질적으로는 얼마나 강압적인 조치였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먼저 명퇴 당사자들에게 명퇴를 결정한 이유를 묻는 설문(중복응답 가능)에서는 특별퇴직금 혜택 때문에 결정했다는 응답은 19%에 불과한 반면, 잔류시 불이익 때문이라는 응답이 48%, 명예퇴직을 신청하라는 압박을 견디기 어려웠다는 응답이 23%에 달해 희망이 아닌 강압에 의한 선택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명퇴 신청을 받는 방식에 대한 설문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명퇴신청이 자발적 선택이었다는 응답한 숫자는 고작 8%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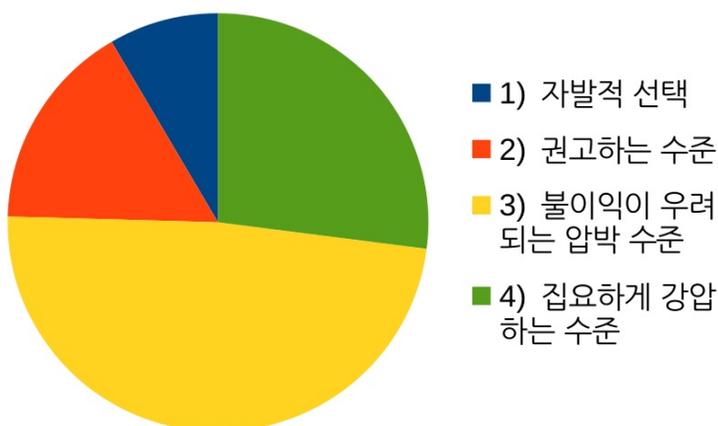
[2014년 명퇴자 1,055명 대상 설문 결과]

2. 귀하가 KT에서 명예퇴직을 결정한 주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순위, 2순위 선택



3. 귀하는 사측이 노동자들로부터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 방식이 어떠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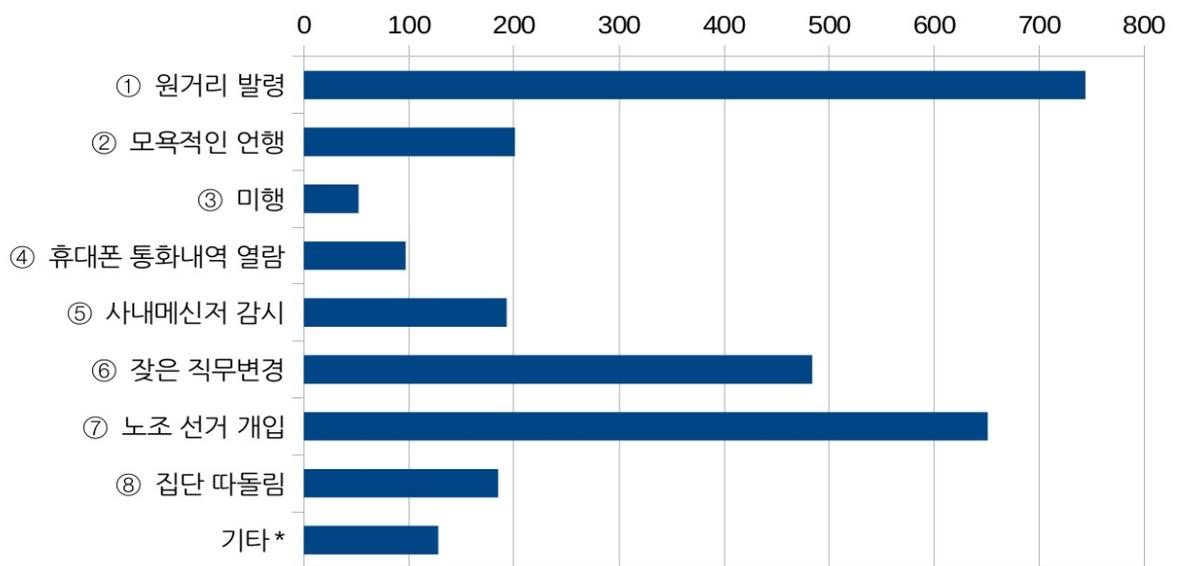


1) 자발적 선택	89	8%
2) 권고하는 수준	170	16%
3) 불이익이 우려되는 압박 수준	511	48%
4) 집요하게 강압하는 수준	285	27%

특히 KT 내에 존재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중복응답 설문은 지금의 KT의 노동인권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원거리 발령 71%, 잦은 직무변경 46%, 노조선거개입 62% 등이 나왔고 심지어 휴대폰통화내역 열람 9%, 사내메신저 감시 18%로 조사되어서 통신사로서 KT의 도덕성에 대해 직원들 스스로도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아래와 같은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행위 중 KT 내에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 귀하의 KT재직기간 중, 모두 응답(중복가능)



또한, KT노조의 명퇴합의 과정에서 여론수렴 절차를 묻는 설문 결과 90%가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고 답하기도 하였다.

4. KT노조가 사측과 명예퇴직 실행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노조원들로부터 의견 수렴 조치가 있었습니까?



KT 직장 내 괴롭힘 연구팀에 참가한 변호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단순한 괴롭힘의 차원을 넘어 범죄적 수준”이라며 “이러한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괴롭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KT 직장 내 괴롭힘 연구팀은 이번 조사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외국 입법 사례를 보완하여, 오는 11월 4일 국회에서 이인영 의원실과 함께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통신노동자의 투쟁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KT새노조 소식지 일파만파 지난 호(19호)에서 보도했던 씨엔엠,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이어 SK브로드밴드, LGU+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파업투쟁에 돌입하였다. 이들 SKBB와 LGU+의 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은 지난 3월 30일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4월 18일 서비스센터에서 만연한 불법적인 노동실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작업공구 및 소모품도 스스로 구매해야 하는 열악한 처우

우리 모두가 주변에서 봐서 짐작하듯 이들의 노동실태는 참혹하다. 이들은 통신 대기업인 SKBB나 LGU+의 마크가 새겨진 작업복을 입고 있지만 보통 3-4단계의 다단계 하도급을 거쳐 일하고 있다. 주 6일 하루 10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은 기본이고 추가 근로수당도 없이 공휴일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작업공구며 차량운전에 따른 기름값은 물론 개통 시 필요한 작업 소모품 등도 본인이 직접 구매해서 설치해야 한다. 심지어 안전장구도 없이 일하는 경우가 허다해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산재보험 가입조차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한단다. 거기다가 고객만족 점수라도 낮게 나온다거나 할당된

영업점수를 채우지 못하는 등의 각종 꼬투리를 잡히면 급여를 차감하기도 한다. 온 국민이 노동자로 일하면 보장되는 4대 보험조차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실정이기도 하다.

KT새노조가 이들 파업현장을 방문하여 인터뷰했을 때 젊은 조합원들이 대뜸 토로하는 가장 큰 불만은 CS(고객만족) 평가제도였다. 한 LGU+ 설치기사는 이렇게 말했다. “하다 못해 랜케이בל조차 내 돈으로 구입해서 제공해야 하니깐 고객이 방마다 랜선 깔아달라고 하면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만 거절했다가 CS 점수 낮게 나오면 급여를 차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담이 되어도 해줄 수 밖에 없어요” 결국 고객만족이라는 허울이 사실은 강력한 노동착취에 다름 아니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과 만나보면 통신사들이 기록적인 순익을 기록하는 동안 전체 통신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실태는 계속 나빠지고 있음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원청의 교섭거부가 파업 불러

이들 통신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3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원청을 상대로 직접고용,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 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였으나 다단계 하청 사장들은 배째라 식으로 버티고, 사실상의 사용자인 원청인 SKBB 나 LGU+는 현재까지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LGU+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3월 30일 노조결성 이후 40여명이 해고당했지만 끈질기게 버티며 9월 18일부터 해고자를 중심으로 여의도 LG본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였고 급기야 10월 8일 600여명의 노동자가 파업에 돌입하였다. 또한 SKBB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조합도 지난달부터 쟁의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되고 지난 10월 6일 1,000여명에 이르는 SKBB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고 파업에 돌입하였다.

통신업계 다단계 착취구조 사라져야

매년 수천억 원에 이르는 SKBB나 LGU+의 수익 이면에는 이처럼 전국 150개의 서비스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참한 눈물이 숨겨져 있다. KT도 마찬가지로 아닌가! 지난 4월 명퇴 시 개통, A/S 업무를 외주화시키면서 정규직 노동자를 8,304여명이나 퇴출시키고 모두 비정규직 업무로 대체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외주화를 통해 노동자들은 2중, 3중 착취당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는 이를 사업합리화라고 하면서 마치 대단한 혁신이나 한 것인냥 떠들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 아닌가!

살인적인 노동시간
불법적인 급여차감
노예계약, 실적 강요

SK브로드밴드 규탄한다!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안녕하세요, LG유플러스 인터넷 기사입니다.
마음대로 부러먹고 이제 와서 노동자가 아니라 합니다.
“LG유플러스는
노동권과 안전을 보장하라!”

월평균 2.5일 쉬는데 급여는 200만원 이하
LG유플러스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주당 평균 60~70시간 일하고 한 달에 2~3일 정도만 쉽니다. 월정인 LG유플러스가 시간 내에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업무량을 할당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센터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업무에 꼭 필요한 차량유지비와 주유비, PDS 구입비와 통신비, 각종 자재 공구안전장비작업복(회사 유니폼) 구입비도 노동자가 부담합니다. 이 돈을 빼고 나면 실급여가 200만원이 안 됩니다. 심지어 대부분 퇴직금과 4대보험료 회사부담분까지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급여명세서가 두 개, 각종 불법 차감
명세서 하나에 찍혀 나오는 기본급 100만원 정도가 근로소득입니다. 그러나 '전 바이 전' 기사들은 그러저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명세서에 찍힌 문은 '수수료' 등의 이름으로 사업소득으로 취급합니다. 이것 때문에 회사는 저회급을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법에 보장된 노동권조차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급여마저도 원장이 제시하는 갖가지 지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차감해 가고 있습니다.

위험지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
폭우, 낙뢰 때 건물에서 작업하다 안전사고, 비스듬한 아파트 옥상이나 단칸에서 일하다 추락사고, 심지어 고래 길 게에 물어 다치는 사고 ... 회사는 책임을 따져도 “날씨 할당된 업무는 문제가 없이 처리하라”고만 합니다. 안전 장비도 기사들이 알아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급여 중 100만원만 근로소득이니 다뤄서 쉬어도 산재 보상이 70만원만 나옵니다. 그러나 해고당하지 않으면 다뤄줍니다. 사망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작업 환경을 개선하려 하지 않습니다.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전화 02-394-6600
팩스 02-2259-6166
이메일 hopead10@gmail.com
카페 cafe.deum.net/hopeunion

SKBB나 LGU+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동시 투쟁은 통신 업계에 유행처럼 번지던 2중, 3중의 노동착취에 근거한 탐욕스러운 수익 쥐어짜기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한계에 왔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싸움의 결과에 따라서는 정규직 통신노동자들은 임금 동결과 구조조정에 시달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단계 간접고용으로 착취당하는 통신업계의 쥐어짜기 관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서 이 파업은 KT노동자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기도 하다. 지나다 보면 마주치는 SKBB나 LGU+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우리 모두 같은 통신노동자로서 따뜻한 응원을 보내자!